

“자살위기 주민에 대한 대응력이 강화됐다”

글 유인종 편집부 / 사진제공 가양4종합사회복지관



가양4복지관은 아산재단의 지원을 받아 2016년 7월부터 지역주민의 자살 예방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서울 강서구 사회복지사들의 역량강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이번 교육의 모델인 영국 연수 모습(2016. 10).

강서구사회복지사협의회는 2015년 10월 지역의 사회복지 종사자 360명을 대상으로 ‘생명존중에 관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실무자 230명(64%)이 지역주민의 자살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무자들이 겪은 자살은 당사자에게 충격을 주었을 뿐 아니라 자살 위기의 주민을 응대하는 데도 어려움을 초래했다. 가양4종합사회복지관(이하 가양4복지관)이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실무자 역량강화사업’을 시작한 이유다.

가양4복지관은 2016년 7월 아산재단의 지원에 힘입어 가양 5·7, 등촌1·4·7·9, 방화2·6·11종합사회복지관과 강서구 복지지원과, 강서구정신건강증진센터 등 14개 기관장과 실무자 44명이 참여한 가운데 교육을 시작했다. 교육모델은 2006년 영국에서 개발된 심리 지원서비스 ‘IAPT’였다. IAPT는 우울·불안 등의 정서적인 문제를 지닌 주민이 고비용의 정신과 치료 대신 받을 수 있는 심리치료로, 심하지 않은 우울증을 포함한 정신건강의 문제를 해결하는 치료로 인정받고 있다. 교육에 참여한 실무자 중 13명은 10월 29일부터 1주일간 IAPT의 본고장인 런던을 방문해 인지행동 치료와 위기개입 상담, 동기면담 등의 심리치료 기법을 배우기도 했다. 1년의 교육 뒤 참가자들은 “그동안 주민이 자살 이야기만 꺼내면 어떻게 할지 몰라 당황했는데 차

분하게 듣는 힘이 생겼다” “예전엔 바로 정신건강증진센터에 도움을 요청했는데 주민이 힘들어하는 게 뭔지 다양한 방향으로 생각하게 됐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고, 이러한 실무자들의 성장은 2017년 10개 복지관이 자살 예방사업을 시작하는 동력이 됐다. 가시적인 교육성과를 거둔 가양4복지관은 2016~2017년 아산재단의 사업수행 우수 협력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가양4복지관의 이효정(39) 사례관리팀장은 “어려운 주민을 돕는 사회복지사들의 능력이 향상된 것은 3년째 지원해준 아산재단 덕분이다. 올해 교육까지 마치면 가이드북을 만들어 신규 복지사들에게 노하우를 전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 강서구 가양4단지아파트 안에 자리한 가양4복지관(관장 김유심)은 1992년 개관했으며, MnJ문화복지재단이 위탁운영 중이다.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에서 사례관리팀·서비스관리팀 등 4개 팀 26명이 근무 중이고, 하루 평균 550명이 이용하고 있다. ☎

우리 주위에는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회복지단체들이 있습니다. 아산재단은 1977년부터 4,500여 사회복지단체에 500억여 원을 지원했습니다. 아산재단은 사회복지단체 지원을 통해 장애인과 독거노인, 저소득계층의 자녀, 외국인근로자, 노숙인, 미혼모, 폭력피해여성, 새터민, 다문화가족 등 외롭고 힘든 분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